조지아에서 온 Z와 보리밥을 먹으며

터치! 코리아

시미즈 히로유키
아메노히커피점 운영

저희 커피점 벽에는 영어도 러시아어도 아닌 이국적인 글자로 디자인 된 오래된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조지아어다. 6년 전에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를 방문했을 때 골동품 가게에서 구입했다. "1973"이라는 숫자 말고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하나도 몰랐으나 인터넷을 이용해 번역해준 어학 마니아 손님에 따르면 오케스트라 공연의 공지인 것 같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늘 음악이 있는 저희 공간에 잘 맞아서 마음에 든다.

내가 조지아라는 나라를 여행한 이유는 일본인 친구 Z군이 살기 때문이다. 나랑 비슷한 나이의 Z군은 줄곧 여행을 떠나 있는 것 같은 사람이고 그의 자유로운 삶에는 항상 자극을 받아왔다. 존경하고 동지 같은 존재다.

Z군과 만난 것은 내가 어학 유학생으로서 한국에 온 2006년 때였다. 그때부터 나는 홍대, 특히 산울림소극장을 중심으로 한 라이브 클럽 주변(지금 내가 운영하는 커피점 근처다)을 어정버정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런 12월의 추운 날, 내가 어떤 바에 앉아 있을 때 그가 들어왔다. 그런데 웬일인지 반팔 티를 입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 대화해 보니 근처 클럽에서 놀다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반팔 차림으로 밖으로 나가 버렸다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그는 추위 때문인지 완전 술이 깬 얼굴이었다. Z군은 중국 유학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가는 길에 한국에 들렀다고 하고, 중국에서 만난 대구 친구 집에 머물며 주말마다 3시간 걸려 홍대로 올라왔었다. 그와 부산역 앞에서 만나 둘이서 대마도에 당일치기로 갔다 온 것도 좋은 추억이다.

다음 해 일본으로 귀국한 그는 중국어 재능을 살려 바로 대만에서 취직했다. 그곳에서 6년간 지낸 그는 새로운

단 5시간 동안 한국 체류한 친구
6년 만의 재회지만 또 쿨한 이별
호기심 잃으면 삶은 지루해져
일상 힘들어도 인생을 여행처럼

자극을 찾아 일본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서쪽으로 가는 여행을 떠났다. 결국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인 조지아에 도달해 그 나라의 매력에 푹 빠져 그대로 정주했다. 현지에서의 직장인 생활을 거쳐 지금은 현지 여행 가이드 겸 코디네이터로서 활약하고 있다. 벌써 8년을 그렇게 지냈다.

그런 Z군이 올해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면서 일본으로 잠깐 귀국하게 되었고 조지아로 다시 가는 길에 한국을 들렀다. 체류 시간은 단 5시간, 수수께끼의 항공권 때문에 김포공항에서 내려 짐을 들고 인천공항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에게는 십여 년 만의 한국 방문이니까 (그때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가게서 커피를 먹어주었다) 예전에 같이 놀았던 홍대 거리를 안내하고 싶다. 하지만 이동과 탑승 수속을 고려하면 홍대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단 한 시간 반 정도일까?

저녁 6시 반 김포공항에서 Z군과 재회하고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택시를 탔다. 목표는 우리 부부가 맨날 자주 가는 가정식 밥집이다. 소박한 맛의 보리밥은 미식가 Z군도 즐기는 모습이었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그다음 여행 가방을 끌며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밤의 홍대를 걸었다. 그는 옛날에 봤던 홍대의 모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홍대입구역에 도착한 건 딱 9시였다. 비행기 출발 시간인 12시에 맞출 수 있는 시각이었다. 6년 만의 재회라는 느낌은 하나도 없고 평소와 똑같은 편한 목소리로 "그럼 또 만나요"라고 하면서 헤어졌다. 다음에 그와 만날 수 있는 것은 언제, 어디서일까? 전혀 알 수 없지만 오히려 그런 것이 좋다. 그가 가지고 온 경쾌한 이국의 바람을 느끼면서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아주 흔한 말의 깊이를 생각했다. 생활에 쫓기기 일쑤인 나도 호기심을 잊지 않고 여행 같은 일상을 보내야겠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황석희의 영화 같은 하루 [114] 내 승객이고 내 책임이에요

They're my passengers, they're my responsibility

민항기 기장의 영문 명칭은 배의 선장과 동일하게 '캡틴(Captain)'이다. 좌초하는 배에서 전원 피신 후 하선하는 선장과 마찬가지로 기장도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한 후 비행기에서 내린다. 영화 '플레인(Plane·2023·사진)'은 위험 지대에 불시착한 민항기에서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장의 활약을 그린 영화다.

브로디 토렌스(제러드 버틀러 분)는 영국 공군에서 복무했던 베테랑 파일럿이지만 민항기 기장이 된 후 난동 부리는 승객을 진압하다가 과잉 대응으로 좌천하고 만다. 새해 전야 비행을 마치고 오랜만에 딸 다니엘라를 만날 생각에 들뜬 토렌스, 대학생인 다니엘라는 공부를 핑계로 너무 오랜만에 아빠를 만나는 게 마음에 걸린다. 하지만 토렌스는 다소 벅찬 딸의 학비에도, 근근이 보는 딸의 얼굴에도 전혀 섭섭함이 없다. "그게 아빠의 의무야. 후회해 본 적 없어.(That's my job, sweetheart. I wouldn't have it any other way.)"

어서 비행을 마치고 딸에게 가야 하지만 이번 항로의 기상이 심상치 않다. 그러나 항공사는 토렌스의 경고에도 연료비 절감을 위해 우회 없이 악천후를 뚫고 가라고 지시한다. 결국 토렌스의 예상대로 악천후는 걷히지 않고 토렌스의 여객기는 필리핀의 한 섬에 불시착한다. 불시착한 섬은 필리핀 정부의 손도 닿지 않는 무장 조직의 근거지.

결국 토렌스와 압송 중이던 살인범

가스파레를 제외한 전원이 무장 조직에 납치되고 토렌스는 이들을 구출하러 나선다. 무모하다며 앞을 막아서는 가스파레에게 토렌스가 말한다. "내 승객이고 내 책임이에요.(They're my passengers. They're my responsibility.)" 토렌스는 목숨을 걸고 무장 조직의 근거지로 향한다.

영화 번역가

社說

민주당은 "11년 전부터 핵어뢰 개발했다"는 北 발표 보고 부끄럽지 않나

북한이 수중 핵폭발로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켜 우리 항구나 해군 기지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신무기 '해일'의 폭발 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핵어뢰로 유사시 미군의 증원 전력과 물자가 집결하는 부산과 우리 해군 기지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북한은 2012년부터 '해일'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50여 차례 각종 시험을 실시했으며 이 중 29차례를 김정은이 직접 지도했다고 한다. 김정은이 전술핵 개발 지시를 공개한 것은 2021년이지만, 이미 2012년에 우리 항구를 공격하기 위한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는 얘기다.

북핵 개발 초기 김대중 정부는 "북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했다. 그러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핵을 공격용이라고 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정세현 전 통일장관도 "북핵은 남(南) 공격용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에 매년 쌀과 비료 수십만톤을 주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해 달러도 공급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면 '인공위성'이라고 감싸주었다.

북핵을 더 이상 감쌀 수 없게 되자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란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19년 트럼프를 이용해 핵 보유 상태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바로 본색을 드러내고 초대형 방사포 등 '신종 무기 4종 세트'로 불리는 전술핵 실험을 시작했다. 이런 무기는 수년간의 연구·개발 과정을 필요로 한다. 북이 대화 공세를 펴던 기간에도 대남 핵공격 수단의 개발을 멈춘 적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계속 주장하며 임기 말까지 북과의 '평화 이벤트'에 집착했다.

정치 세력이 안보 문제에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북핵 개발 초기에 북의 목표를 모르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 명백해지면 생각을 바꾸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게 정당의 책무다. 여기에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 국민 생명과 나라 안위가 달린 문제에 무슨 좌우가 있나. 그런데 민주당은 북핵이 발전할 때마다 말과 논리를 바꾸면서 북한을 감싸고 있다. 북이 아니라 도리어 국내 정치 상대방 때문에 안보가 불안하다고 한다. 민주당은 북이 11년 전에 핵어뢰 개발을 시작했다는 발표에 대해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껴야 한다.

동영상 사설

'연포탕' 약속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나, 좌절된 건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정책위의장에 친윤계 박대출 의원을 임명하면서 당직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김 대표와 함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전원, 당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전략기획·조직부총장, 대변인, 여의도연구원장 등 내년 총선 전략을 짜고 공천 실무를 맡을 핵심 당직이 모두 친윤계로 채워졌다. 원내대표 자리가 남았지만 이는 의원들이 선출한다. 후보로 거론되는 김학용·윤재옥 의원도 모두 친윤계다.

전당대회에서 이긴 측이 주요 당직을 차지하는 것은 정치권의 관행이다. 당직을 고르게 나누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수도 없이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공약했다. 주요 당직에 비윤계를 등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전당대회가 끝나고 당직 인선 뚜껑을 열어보니 친윤 일색이었다. 김 대표는 연포탕 약속을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당선됐을 것이다. 그런데 왜 약속하고 며칠 만에 노골적으로 식언을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후 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는 '역컨벤션 상황'을 겪고 있다. 비교적 젊은 비윤계 후보가 전멸한 데다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시간제 혼선, 대일 외교 논란까지 더해져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청년층의 이탈이 심각하다고 한다.

김 대표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총선 승리라고 거듭 말했다. 선거는 지지층을 확실히 결집하고 중도층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오는 당이 이긴다. 역대로 분열한 당은 패했고, 서로 합친 당이 이겼다. 김 대표는 당원끼리만 치른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연포탕'과 같은 핵심 약속을 뒤집으면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선에서 어떻게 승리하겠다는 건가.

김 대표 측은 "당의 대다수가 친윤계라 연포탕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지킬 생각 없이 거짓말 공약을 한 것이다. 또 "인사뿐 아니라 정책·메시지·일정 등을 통해 '더 큰 연포탕'을 선보이겠다"고 하지만 말장난일 뿐이다. 정치권에선 김 대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식언할 사람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결국 김 대표는 연대, 포용, 탕평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여권 핵심들에게 막혀 좌절된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이 과정을 보면 내년 총선 공천을 두고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또 소수당이 되면 나라의 장래가 걸린 연금·노동·교육 등 모든 개혁이 물 건너가게 된다.

상위 0.2% 몰리는 의대, 세계 의대 순위는 크게 낮은 이유

최근 영국 대학평가기관 QS가 발표한 '2023년 학문 분야별 세계 대학 순위' 의학 분야에서 국내 순위가 가장 높은 서울대 의대가 세계 37위에 그쳤다. 순위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다음이 연세대 의대 56위, 성균관대 의대 94위 순이었다. 서울대 의대 순위가 낮은 것은 환자 치료 기술은 세계 수준까지 왔지만 의학 연구가 크게 미흡하고 특히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논문이 세계 151위로 하위권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한국 사회엔 의대만 갈 수 있다면 재수, 3수, 4수 등 몇 번이고 대입 시험을 보는 이른바 'N수생'이 넘쳐나고 의대에 보내겠다고 초등 의대 준비반이 성행할 정도다. 상위 1% 수험생들이 전국 의대를 차례로 채운 다음 다른 학과에 눈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서울시 안에 있는 의대를 가려면 전국 0.2% 이내에 들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서울대 화학공학과는 세계 17위, 카이스트 재료과학과는 18위였다.

대학 평가 기관이 매기는 순위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흐름과 추세는 보여준다. 한국 최고의 수재들이 다 모이는 의대가 그렇지 못한 타 분야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뒤진다면 그 이유를 살필 필요가 있다. 공대에 수재들이 몰릴 때 한국 제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지금은 몇몇 분야에선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의대는 최상위권 수재들이 한꺼번에 몰려든 지 20년이 넘었는데 1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의료 시장에서 거의 존재감도 없다.

이제 한국 의료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의사과학자를 적극 키우고, 과감한 비대면 진료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연구 개발해야 한다. 해외 의료 시장 진출 여지도 크다. 한국 의료가 나라에 새 활로를 열어줬으면 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특별기획 ③

newdaily.co.kr 뉴데일리

전쟁이다… 시진핑 중공과 자유진영간 '가치전쟁'이다

'한·미·일 공유가치' 강조,
시진핑·푸틴·김정은 대륙 '악마 트리오'에 대한 저항
바이든, '미국이 돌아왔다' 정책 추진
윤석열, '대한민국도 돌아왔다'로 호응

한국 주류언론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 문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서방세계와 시진핑 중공의 △**이데올로기 대결** △**가치의 싸움** △**문명 충돌**이란 틀 속에서도 조망해야 한다. 한국 언론들이 등한시하는 철학적 주제다.

시진핑은 2013년 집권하면서부터 하나의 강한 신념을 가졌다. 자신은 소련의 고르바초프처럼 어설픈 개혁·개방을 하다가 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중공은 [스탈린+히틀러+군사 파시즘+디지털 독재]를 합친 '프랑켄슈타인'이 되었다.

이런 중공을 '기술 권위주의 국가(Techno authoritarian state)'라고도 부른다. 첨단 앱으로 자국민과 타국민의 일거수일투족과 충성도를 수집한다. 인권 운동가, 신장·위구르·티벳인들을 가차 없이 탄압, 구금, 고문한다.

그러나 시진핑 중공은 소련처럼 자국 모델을 다른 나라들에 고스란히 수출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의 이데올로기 전쟁은 서방세계의 민주주의를 안에서 허물어뜨리는 방식을 취한다. 어떻게?

중국은 자유 세계에 들어와 그곳의 자유를 한껏 활용하는 방식으로 심리전·정보전을 한다

△공자학원이라는 이름의 수상쩍은 기관
△비밀경찰서 운영 △미인계 △미디어 활동
△대학·문화계 침투 △교민 활용 간첩질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의 '공작'을 '외교'로 착각한 서방세계

이에 비해, 미국 등 서방세계 자유주의는 소련권 붕괴 이후로는 자유 진영의 이념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거나, 못했다. 신고립주의였다.

이러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말과 함께 **'가치전쟁'**에 겨우 복귀했다. 그 연장선에서, 시진핑·푸틴·김정은 대륙 '악마 트리오'에 대항할 '한·미·일 공유가치'가 강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NL운동권의 친중·친북 이데올로기를 배척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자유의 세계관'**에 적극적으로 합류하고 있다.

주사파와 그 동맹군은 선진 한국을 아직도 19세기 말~20세기 초 중반의 식민지라고 우긴다. 이걸 '해방'하고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따위 망집(妄執)은 좌파도 진보도 아니다. 사이비 밀교(密敎) 집단의 저주일 뿐이다.

21세기 자유 한국인, 특히 MZ세대는 '포스트 모던' 세계인이다. 이들이 시진핑·푸틴·김정은 폭압 아래서 살 수 있을까?

없다면 대륙의 막창자 꼬리이길 거부하고, 인도·태평양 자유 문명을 향해 찬란한 비상(飛翔)을 결행하라!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3월 20일 게재 되었습니다.

뉴데일리 '광고형 기사'를 지원해주세요 19번째입니다.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